

# 향부자 품귀 폭등세 여전, 일천궁은 큰 폭 하락 올 산수유 풍작 햇것 출하되면 시세거품 빠질듯

가을철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한산하기만 했던 한약시장이 다소 활기를 되찾는 듯. 일부 품목의 경우 국산 약재 강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대부분의 국산 약재가 품귀현상으로 인해 물량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 수입산에 밀려 국산 한약재 생산 기반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약재로는 수입이 제한돼 있는 수급 조절품목이 식품으로 대량 반입돼 시중에서 한약재로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구나 식품용으로 반입된 수입산을 국산과 혼용 유통함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수입업자 또는 중간상인들에 의해 국내 생약생산 농가들은 갈수록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최근 몇 개월 동안의 국산한약재 값 폭등세도 결국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보다는 사재기하는 중간상이나 수입업자들의 수입산 반입 발미만을 제공하는 구실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최소한의 국내 생약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건강** 9월 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짝으로 거래되는 근당 도매시세는 지난달 보다 다소 오른 3천8백원 선. 지난해 생강 값 폭락으로 올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 얼마전 까지만 해도 20kg에 2만원 선이던 생강 시세가 지금은 5배나 오른 1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건강시세도 바닥에서 근당 3천5백원을 형성하고 있다. 올 상반기 한약시장에서 근당 2천5백~2천8백원, 산지에서 2천2,3백원 선에 거래되던 건강이 약 40%포인트 오른 것. 생산량이 많지 않아 건강 시세는 앞으로도 근당 4천5백~5천원선 까지 더 오를 것이라 분석이다.

**구기자** 지난 7월부터 다소 값이 빠지기 시작. 햇것 출하기에 접어들어 8월 중순경엔 근당 8천5백원 선까지 떨어졌던 구기자 시세가 9월 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근당 1만4천원, 청양장에서도 근당 1만3천5백원 선으로 다소 오른 시세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추석 무렵 갑작스런 태풍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기자 작황이 그리 좋지 못한 때문인

듯. 산지인들은 오히려 지난해 보다 구기자 생산량이 더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년에 비해 햇것 출하량도 적고 매기도 뜸한 편. 지금 출하돼 나오는 햇구기자는 알은 굵지만 색깔이 거무스름해 상급은 아니다. 알이 잘고 색깔도 붉은 상급 구기자는 이달 중순경 부터나 본격적인 출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구기자 시세는 작황부진 영향으로 당분간 상보합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

**당귀** 햇것 출하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9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토당귀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7천원(통), 8천~8천5백원(절) 선으로 여전히 상보합세다. 강원도 평창 산지에서도 햇당귀가 통으로 근당 6천5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 지난달 산지에서 6천8백원 선까지 거래되던 토당귀 시세가 햇것 출하되면서 다소 빠졌다고는 하나 예년 이맘때 당귀 시세에 비하면 약 40%포인트 가까이 오른 셈이다. 그렇다고 물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어서 햇것 출하가 당귀 상보합세 경향은 의외의

상황인 것.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햇것 출하기를 앞두고 사재기 상인들에 의한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그래도 햇것 출하가 본격화되는 시점엔 시세가 더 많이 빠질 것이라 예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지난해 당귀 시세가 좋아 올 재배면적은 다소 늘었지만 꽃대가 많이 서는 바람에 발을 갈아엎는 농가가 많아 생산량은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게 산지인의 설명.

**박하** 올 들어 자연생 박하 채취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시세도 두 배로 경총 뛰었다. 9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등지에서 짝으로 거래되고 있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지난해 이맘때 시세인 근당 1천5백원의 두 배가 넘는 3천5백원 선으로 상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갈수록 풀잎약재들의 물량이 귀해지면서 박하시세도 다소 더 오를 것이라 분석이다.

**산수유** 국산 산수유 물량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9월말 현재 근당(600g 기준) 5만5천원에도 물건이 없다. 지난해 이맘때 근당 2만7천원 선에 유통됐던 산수유 시세에 비하면 두 배 이상, 98년 시세인 1만3천원에 비하면 네배 이상 폭등한 셈이다. 이같은 산수유 시세 폭등세 배경에는 국산 산수유 생산량의 대폭 감소 원인 외에도 납뽀게 사건 이후 국내 수산물검역이 까다로워진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측에서 보따리물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영향으로 그동안 보따리물건이 성행했던 산수유의 경우 더욱 물량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것. 이달 중순경 부터나 조금씩 햇것 출하가 시작될 예정이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산수유 작황이 풍년이라는 게 산지인의 전언이어서 햇것 출하와 함께 그동안 폭등세를 기록했던 산수유 시세에서도 다소 거품이 빠질 전망이다.

**오가피** 최근 건강식품으로서의 오가피 약리효능에 대해 TV에 보도되면서 오가피를 찾는 소비자들이 급증, 수요 공급의 원칙

에 의해 오가피 시세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난 7월 말까지만 해도 근당(6백g 기준) 1만3천5백원 선에 도매거래 되던 원오가피 시세가 9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등 한약시장에서 근당 1만6천원에도 물량이 귀한 실정. 산지에서조차 1만5천원에도 물량 구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이맘때 근당 2천원 선에 불과하던 막오가피도 지금은 근당 4천5백원에도 물건이 없다. 마스크의 위력은 대단해서 지금도 오가피를 사는 소비자들은 꾸준. 시세도 당분간 상보합세 이어질 전망이다.

**천궁** 큰폭 하락세. 지난 7.8월 까지만 해도 근당(6백g 기준) 도매가가 1만2천원(절) 선을 오갔던 일천궁이 소량이지만 햇것 출하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9월말 현재 근당 8천원(절) 선으로 값이 빠졌다. 산지인 영양에서는 근당 7천3백원 선까지 떨어졌다. 식품용으로 대량 반입돼 시중 유통되고 있는 수입 천궁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출하돼 나오고 있는 일천궁들은 대부분 육이 적고 속 색깔도 누런 것들이어서 시세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 뿌리도 튼실하고 속 색깔도 하얀 상품은 이달 말 이후 부터나 본격 출하돼 나올 예정이며 지난 98년 생산량 급감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해온 덕분에 올 재배면적은 예년비 30~40% 증가한데다 작황도 평년작이어서 본격적인 햇것 출하기에 접어들면 일천궁 시세는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 전망. 토천궁은 아직도 물량이 귀해 근당 1만8천원에도 품귀. 수입산 일천궁은 근당 1천6백원 선이라고.

**향부자** 갈수록 폭등세. 지난해 이맘때 근당(6백g 기준) 2천3백원 선, 98년 이맘때 불과 1천7백원 선이던 향부자 시세가 9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등지에서 근당 8천5백원 선까지 유통되고 있다. 수입산도 근당 3천~3천5백원 선으로 상보합세. 98년 이전까지 생산원가를 밀돌만큼 바다세를 형성했던 향부자 재배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 물량이 부족해 심각한 품귀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수급조절품목으로 반입된 수입 향부자 100톤이 근당 3천원 선에 시중 유통되고 있어 품귀현상으로 인한 급한 해갈은 면했으나 햇것 출하기를 앞두고 국산 향부자 시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정희>



## ‘중국산 패모시세 폭등’

지금 당장은 국산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값싼 중국산 한약재. 그러나 국내 생약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나면 수입약재도 더 이상 값싸게만 들여올 수는 없다. 수급조절품목이었던 패모는 지난 97년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되면서 국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 지금은 종자조차 구하기 어려울 만큼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같은 국내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들어 중국산 패모시세가 급격한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미화로 근당(6백g 기준) 2.5\$(한화 3000원 선) 수준이던 중국산 패모가 9월 말 현재 현지에서 9.5\$(한화 1만1천원 선)까지 거래되고 있다는 것. 국내 유통중인 중국산 패모시세도 지난 7월 근당 4천

원 선에서 9월 말 현재 근당(600g 기준) 8천5백~9천원 선으로 두배 이상 경총 뛰었다. 수급조절품목으로 묶여 있을 97년 당시 국산 패모 시세는 근당(6백g 기준) 5천~6천원 선에 거래됐다. 시장상인들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패모가 생산되지 않자 시세차익을 노린 상인들에 의해 중국 내에서 패모를 사재기하는 현상이 발생, 시세폭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내에서도 패모 물동량이 귀해 시세는 근당 1만원대를 넘어 앞으로도 더 오를세

를 보일 것이라 전망이다. 패모 외에도 중국내에서 물동량이 귀해 값이 오르는 품목으로는 산수유와 천마, 향신료와 방항제로 사용되는 익지인, 정향, 초과, 팔각향 등이다. 재배기간이 3~4년으로 다년생인 황연도 생산량이 부족한데다 사재기 영향으로 값이 오를세를 띠는 품목중의 하나. 주목할 만한 사항은 중국내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들 품목들의 공통점이 모두가 국내에서는 생산량이 거의 없거나 품귀로 물동량이 귀한 품목들이라는 점. 자국의 생산기반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입에만 의존할 경우 우리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